

# 세계지방자치동향



## 자치행정

- (한국)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화상회의: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사례
- (일본)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시대와 일본의 지역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

## 지방재정

- (일본) 히로시마현의 산업 폐기물 매립세 도입현황과 과제

## 지역발전

- (미국) 텍사스 주 Jersey Village의 장기적 수해 복구 계획

---

## 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화상회의: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사례<sup>1)</sup>

---

### 코로나 시기의 필요충분조건: 비대면 화상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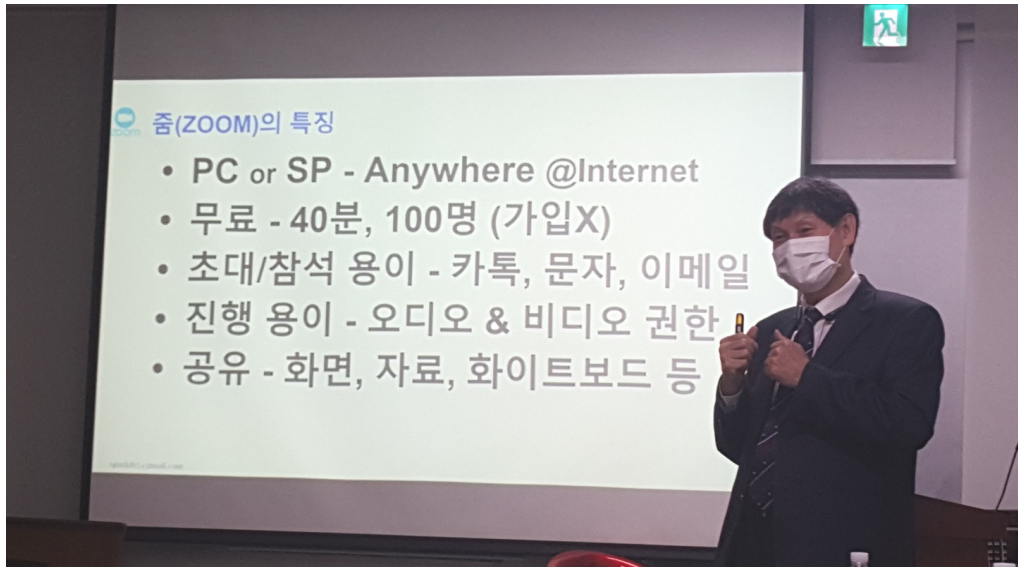
-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여러 모임과 회의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자치회 활동 역시 주춤한 상황
- 상기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회는 작금의 사정이 단기에 해결 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새로운 소통 방법을 찾고자, 소규모로 화상회의의 교육을 진행하며 실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
- 코로나19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지만 원래부터 계획 중이었는데, 그 이유는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직책이라 위원들의 회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,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

###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경과: 시행착오

-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, 먼저 임원 위주의 화상회의 교육이 우선이라 판단해서, 임원교육 후 회원들 교육을 하기로 결정해서 현재는 완료한 상황
- 현재는 화상회의 교육과 시행이 초기인 관계로 화상회의가 익숙지 않지만, 지속적인 교육과 실제 회의진행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할 예정
- 종로구 주민자치회는 분과별로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, 진행 중에는 일부 분과에서 회의를 독점하는 일부 회원들이 나타났음

---

1) 2020년 6월 10일 및 17일에 걸쳐 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최원녕 회장, 양지윤 간사, 조은형 주무관과의 인터뷰 및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.



| 그림 1 | 평창동 주민자치회 회상회의 강의를 장면

## 진행 중 고려해야 할 사항

### ① 선 임원 교육, 후 회원 교육

- 먼저 임원진 교육을 하면, 회원들 교육수준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먼저 교육
  - 테스트 차원에서 보면 회원들이 단체 대화방 참여는 어려워하지 않으나,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부여해서 참여하는 방식은 어려워 함
- 회원들을 참여해 초대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나, 문제는 익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과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됨

### ② 강의자의 눈높이 교육 필요

- 비대면 회상회의 강의를 편하고 쉽고 하는 게 중요하며, 강의에 들어가는 교육생 수준이 대략 3가지 정도의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음(중년/중장년/노년 등으로)
- 20대보다는 평균 연령이 60대에 맞출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요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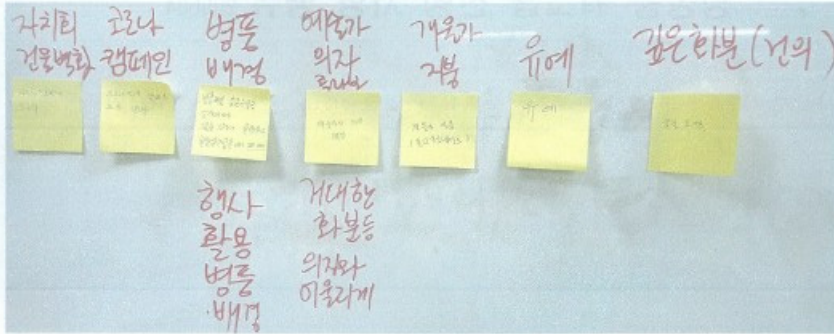


| 그림 2 | 평창동 주민자치회 화상회의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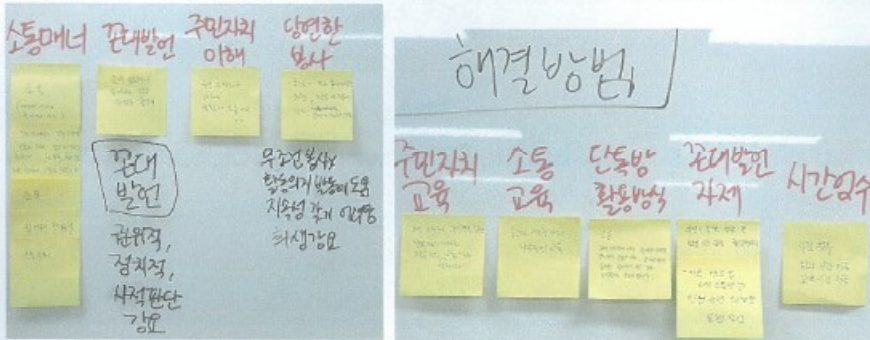
### 핵심적 고려사안: 소통 (수단이 아닌 목적에 충실할 필요)

- 화상교육의 핵심은 기술교육이겠지만, 리더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
  - 과거에는 회의의 리더가 중요했으나, 작금에는 고른 기회와 적정수준의 발언,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회의가 신이 나고 역동적이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음
  - 화상회의는 세팅 자체가 오프라인만큼 쉽지 않으며, 특히 미묘한 감정 전달 등에서 한계가 있어 보임
  - 미묘한 상황은 다루기 쉽지 않지만, 의결은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음
- 어떻게 회의설계를 하느냐가 중요
  - 민주적 회의가 되도록 편안한 분위기와 더불어 현장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
  - 의견을 내고 원칙에 맞게 진행될 필요; 소통훈련, 회의훈련, 그리고 조언 등(토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나 준비가 잘 안되어 있음)

■ 환경안전분과 : 5월 28일 오후 5시 줌교육 + 워크숍(2020 의제실행 방법)



■ 교육TF팀: 6월 3일(수) 오후5시 워크숍 (주민자치회 활동의 아쉬움과 해결방법)



<주민자치회 아쉬운 점>

1. 소통매너 부족(소통의 방식) : 온라인 소통시 날카로운 지적, 강한 주장으로 원활한 소통 어려움, 중간자 역할 할 만한 주민 없음
2. 문제발언(소통의 내용) : 권위적, 정치적인 발언, 사적 판단의 내용 강요
3. 주민자치 이해 부족
4. 당연한 봉사로 여김 : 활동비 지급 없음, 지속성 갖기 어려움, 활동비는 활동의지 발동에 도움이 됨, 희생이 강요되는 구조

<아쉬움 해결 방법>

1. 주민자치 교육 : 주민자치에 대한 반복&지속적 이해 교육 필요
2. 소통교육 : 중간자 역할자의 지속적 교육
3. 단체방 활용방식 정비 : 분과별 단체방 소통 → 분과장 회의로 논의 전개
4. 문제발언 자제 :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견이 있는 내용은 발언 자제했으면, 안전과 관련없는 발언 자제
5. 시간 엄수 : 회의시간, 교육시간 모두 시간 엄수

| 그림 3 | 평창동 주민자치회 회의 진행방법 워크숍 자료 일부

## 디지털 文解 해결 시급: 정보력과 정보의 질의 차이

- 획일적 소통보다는 수평적 소통이 중요
- 더디 걸릴지라도 소통이 중요한 문제라 판단됨
- 필요하니까 알려준다는 식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며, 가령 일찍 화상회의가 시작됐으니 부담도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생기게 하는 게 중요(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면서 가는 게 쉽지 않음)
- 온라인 소통형태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실험 역시 필요
- 통장회의도 전환 필요; 기술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소통이 중요
- 교육을 했다고 바로 되지는 않으며, 제반 설계가 중요

---

**김건위**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)